

'책의 도시 전주' 헌책 · 한옥도서관 생긴다

시, 동문거리 정체성 담은 헌책도서관 · 한옥마을 여행자 쉼터 될 한옥도서관 조성 추진

전주 구도심 동문거리에 과거 헌책방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옛 지역을 되살린 헌책도서관이 들어선다. 바로 옆 전주한옥마을에는 여행자들이 고즈넉한 한옥기와 아래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옥도서관이 생긴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중 구도심 동문헌책방거리와 한옥마을에 각각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날 수 있고 이웃과 만나는 공동체 거점공간인 '헌책도서관'과 '한옥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헌책도서관은 동문거리 내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보강 등을 포함한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면적 368.2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문거리의 정체성을 담은 헌책도서관이 조성되면 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간으로서 책과 문화의 쉼터, 지역 인문학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소밀위기에 놓인 동문헌책방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한옥마을을 여행자를 위한 쉼터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4일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8개 특화도서관 현장을 점검했다.

될 한옥도서관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명인관(완산구 한지길 68-3)의 3개 동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125.4㎡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도서관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과 다가여행자도서관 뒤를 잇는 세 번째 여행자도서관으로, 한옥마을 곳곳의 아름다운 골목

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행자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헌책도서관과 한옥도서관을 포함해 올해 △덕진공원 연화정 검이불투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책의 산 숲속도서관 등 도시 곳곳에 특화도서관을 추가 조

성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혁신복합문화센터 △건지산숲속도서관 △덕진공원 검이불투도서관(연화정) △화산숲속시집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헌책도서관 △한옥도서관 등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8개 특화도서관 현장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동문거리의 정체성을 담은 헌책도서관과 한옥마을의 품격을 높일 여행자도서관은 전주시민과 여행자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 곳곳에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여행목적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특화도서관을 조성해서 책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날 전라감영 인근 옛 다가치안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다가여행자도서관 문을 열었으며, 다음 달까지 개방형 청의도서관으로 재구성된 금암·송천·인후도서관 3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는 리미숙 지부장, 김성두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설 연휴 기간 재택치료자 가정 약품 배송 활동을 전개했다.

재택치료자 약품 배송 활동 앞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휴일 · 야간 전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는 리미숙 지부장, 김성두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품 배송 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택치료자 약품 배송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인원을 경신하고 있고 설 연휴기간 동안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는 전주시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전주시지부 임원들은 물품 배송이 불가능한 야간과 휴일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정 약품 전달에 앞장서 그 의미를 더 했다. 리미숙 지부장은 "명절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임원들의 지원을 받아 약품 배송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주시 직원들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나를 찾는 아카데미 7-DAY 건강챌린지 진행

전주시 야호학교가 코로나19로 저하된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 회복을 도왔다.

청소년자치배움터이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나를 찾는 아카데미(이하 '나찾아')' 청소년들과 함께 7일간의 건강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찾아 7-DAY 건강챌린지'는 △'걷기 활동'으로 7일간 꾸준히 걸으면서 운동량 늘리기 △'채소 키우기 활동'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채소 키우기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걷기 활동의 경우 청소년들이 만보기를 이용해 매일 달리는 운동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꾸준한 걷기 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한 것은 물론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채소 키우기 활동의 경우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콩에 7일간 매일 물을 주며 콩나물을 키우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직접 재배한 채소가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성인 미접종자 3만3986명 대상 노바백신 접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신이 접종된다.

전주시는 백신 이상 반응과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3만39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물질(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와는 달리 기존 독감 예방주사나 B형간염 백신처럼 전통적 제조방식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작된 백신이다. 노바백신 접종은 전량 사전예약제

로 운영되며, △의료기관 ·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 노인 ·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중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인정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대 이상반응자 및 접종 연기 · 금기자 외에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④-1)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자도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

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판정자 가운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이상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 백신반응 인과성 불충분(④-2) 판정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역패스 대상 확대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농민들이 땅 흘려 가꾼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400만원을 투입해 '202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직 ·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태양광 전기울타리와 그물망 울타리 등과 같은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28일

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또는 과수 · 화훼 ·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을 우선 선발해 지원키로 했다. 농가당 지원 금액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이다. /김윤상 기자

'청년쉽표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 18일까지 대표 청년정책 제17 · 18기 참여자 공개 모집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전주시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쉽표 프로젝트'가 올해도 계속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쉽표, 프로젝트'의 제17 · 18기 참여자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쉽표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힘겨워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청년쉽표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들은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 상담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힐링캠프와 사후 심리검사, 청년쉽표 에세이를 통해 심리상담 전후 심리적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고 기록해보면서 참여한 청년들이 재도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청년쉽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는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일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활동수당도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단,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청년쉽표 기존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6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eum43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오는 3월 초 최종 참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